



국내 사회과학서점 1호, 인서점의 부활

‘아름다운 사람들’ 과의 동행으로 이루어낸 기적같은 이야기
각계 지원으로 철거 석달만에 다시 문열어

2005년 9월 13일, 인서점이 스러지던 날

“작년, 추석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건물이 강제철거돼 책들이 물류센터로 옮겨질 당시에... 좌절과 절망만이 가득했죠...”

인서점의 심범섭(65) 대표는 자주 말끝을 흐렸다. 굵은 길 위에서 25년 동안 일궈 온 서점이 ‘철거’라는 이름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를 회상하며 애써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1982년 5월 12일. 군사독재정권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당시, 심 대표는 방향을 잃은 듯한 사회에서 분명한 정체성이 여느때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건국대학교 앞에 인서점을 열었다. 국내 사회과학서점 1호였다. 이름도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의미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동체’를 지향하며 ‘사람 인(人)’자를 넣어 지은 것이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인민서점, 인민공동체가 아니냐며 오해를 받고 이념서적 등의 판매금지 도서를 취급했다는 이유로 공간기관에 쫓겨 도피생활을 하는 등 그 과정은 평탄치 않았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80년대를 힘들게 버틴 인서점이 작년 9월,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강제 철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96년에 이어 두 번째였기에 다신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믿었던 심

대표에겐 절망, 그 자체였다. 특히 책들이 컨테이너에 무자비하게 던져졌을 때 “책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착잡했다”고 토로한다. 지금도 찾아오지 못한 책이 수천 권이다.

“철거될 때는 학생들이 찾아와서 저항하기도 했는데 자칫하면 젊은이들이 다치겠다는 생각에 무조건 말렸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지만 결국 책은 공식, 비공식으로 모두 압수되고 건물까지 파괴됐어요. 무엇보다 책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 미안함이 컸습니다. 재 개점을 며칠 앞두고 물류센터에서 책을 찾아오고 나서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건국대학교 학생 주축 ‘인서점 살리기 운동’으로 3개월 만에 재 개점 42년 동안 책장사를 업으로 살아온 심 대표는 스산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집 옥상에 작은 규모로 배추농사를 짓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서점에서 살다시피하며 심 대표를 따르던 건국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인서점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며 그를 찾아온 것도 이 무렵이었다. 결국 다시 일어서보라며 시민단체, 건국대학교 동문회와 신문사, 총학생회장 등을 주축으로 모금운동이 시작됐다. 이러한 인서점의 상황은 점차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

했고 모금운동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안돼 6,000만 원이 모였다. 애초 목표액을 훨씬 넘은 수치였다. 이에 힘을 얻어 현재는 9,500만 원 정도가 모아졌다. 십시일반의 도움으로 종전에 있던 곳으로부터 약 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인서점이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한 날이 12월 10일, 철거된 지 88일만이었다.

“이사하던 날은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 젊은 청년들이 책을 나르고, 꽃아주는 작업을 도맡아 주었습니다. 처음 가지고 있던 책들에 비해 60퍼센트도 안 들어왔지만 그조차 꽃을 공간이 없어 버린 것도 많아요. 그래도 참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아준 분들 덕분이지요. 인서점이 살아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개인적인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주었던 것이, 그것도 두 번 씩이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며 아름다운 사람들을 향해왔던 인서점의 목적들이 아주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애초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 새로 만든 간판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근 10년을 주기로 일어난 열병 같은 사건을 앓은 인서점은 그 만큼 상처는 깊지만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셈이다.

‘문화사랑방’으로 문화의 실천 지향, 모두의 사랑방으로

당시에는 그 개념이 생소했던 사회과학을 화두로 개점한 인서점은 이후 문화과학, 최근에는 문화의 실천을 지향하며 시대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해왔다. 마을에서 서당을 운영했던 아버지 덕에 어린 시절을 서당에서 보낸 심 대표는 그 때문에 잊혀진 서당문화를 알리고 나누기 위해 ‘문화사랑방’을 도입했다. 청년문화, 대학문화를 포함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담론을 형성해보겠다는 취지다. 좌담회, 토론, 글쓰기, 그리고 작은 출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런 인서점의 청사진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동체 ‘인사랑’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된다.

아직 서가 정리가 한창이라 책 분류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인서점의 서가는 여느 서점들과는 다르다. 군데군데 노란 이름표가 붙어 있는 곳도 보이고, 한쪽에는 심 대표가 서평을 쓴 책들을 모아놓은 서가도 있다. 그 곳에 꽃힌 책을 사가는 독자들은 심 대표의 서평도 ‘덤’으로 받아볼 수 있다.

“문화사랑방의 개설과 함께 개인 혹은 단체 서가를 증정할 계획입니다. 책꽂이에 노란 이름표가 붙어 있는 곳은 교수님들이나 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서가예요. 각자가 소장하거나 추천하는 책들을 꽃아두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권장도서가 되지요. 관리는 하지만 인서점의 재산이 아닙니다. 인서점에 애정을 가진 분들에게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이 곳을 언제든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문을 닫은 후에도 오실 수 있도록 5군데 정도 단체에게는 열쇠도 마련해줍니다. 독서 토론을 한다든지, 좌담을 한다든지, 밤새도록 책과 사회의 담론이 이어지도록...”

‘담론’이라지만 틀에 박힌 일정에 따르지 않고, 인서점을 방문하는 사람들과의 얘기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른바 거대담론에 대한 접근이 아닌, 일상적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빛뜨락’이란 공간도 마련했다. 인서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환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각종 잡지, 신간도서가 비치돼 있다. 그 이름처럼 서가 쪽보다 환하게 꾸며 만남의 자리로 제공되며, 심 대표가 개인적으로 선물 받은 다과도 모두가 나누어먹을 수 있도록 내놓고 있다. “책을 안 사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들렀다 갈 수 있게”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문화의 공유로 모인 사람들, 그렇게 모여든 이들이 ‘인서점의 든든한 고객’임을 심 대표는 자부한다.

평생을 ‘인서점 아저씨’로... 사회의 ‘꽃’이 되기 위하여

‘아저씨’란 아이디어로 인서점의 소소한 일상, 계획, 사진 등을 글과 함께 올리는 것으로 인터넷 카페관리도 직접 하고 있는 심 대표는 글만 보서는 나이를 짐작하기 힘들다. 일흔을 바라보지만 어디서든 ‘인서점 아저씨’로 통하다보니 가끔 초청을 받아 강연회에 참석하면 직접 만나보기 전에 40대 쯤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놀라기도 한다. 그는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오다보니 나이에 비해 젊은 사람들과 호흡이 잘 맞아 오히려 나이든 사람하고는 안 맞는다”고 웃어보인다. 주례를 서준 커들도 600쌍이 족히 넘어 그들이 아이와 함께 찾아오면 마치 자신의 손주 같아 반갑기만 하다.

“스스로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인서점이 세워지면서 적지 않은 나이에 계속 서점을 끌어들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도 학생들은 저보고 평생 동안 인서점을 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이 곳에서 일생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인서점 후원회는 모금운동을 넘어 책을 파는 활동적인 조직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서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지요.”

‘죽고 살기’를 반복한 인서점을 지켜보면서 ‘죄를 지은 것 같다’는 심 대표는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예쁜 꽃이 있으면 누구나 그 꽃에 눈길을 주고 사랑하듯, 인서점을 이 사회의 그런 ‘꽃’으로 여기며 꺾지 않고 보존하려는 마음이 지금의 인서점을 만들어냈으며 애써 마음을 다스린다. 꽃이 아름다움과 향기로 존재의 가치를 알리듯, “인서점이 훌륭하게 살아오지는 못했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저는 다만 인서점을 지키는 머슴이고 일꾼입니다. 모두와 함께 걸고 가는 입장이지요. 자본주의 시대, 경쟁이라는 치열한 늪에서 위안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 인서점은 그런 곳을 지향합니다. 누구든지 들러서 얘기를 나누고 책도 보다 가세요. 우리 모두의 이상과 희망을 인서점이란 공간에 잘 보존시키겠습니다. 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것이니까요.” **▶▶▶**

취재_홍이현기자 | 사진_박신우기자